

광양 라벤더마을 청년 마을기업 준비

광양시가 광양읍 사곡리에 위치한 라벤더마을에 청년 마을기업을 만든다. 청년 마을 기업을 통해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준비도 시작한다.

6일 광양시에 따르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창의적 사업을 발굴, 농촌의 안정된 삶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공

사곡리 청년 주축...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 라벤더 가공품 판매·폐 금광 휴식공간 조성

모사업은 전국에서 10개소를 선정한다. 개소당 7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이 지원된다.

광양시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공모를 위해 관계부서와 T/F팀 및 추진단을 구성했다. 사업 예정지역 민·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

업 정책설명회, 전문가 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 지난날 분정마을에서 사업발굴 워크숍도 열렸다.

광양시는 광양읍 사곡리 일원에 석재 채취에 사용되던 폐광터와 지난 1975년 폐광 후 방치돼 있는 금광터널, 옛 목화단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구상했다. 이와함께 광양시는 사업추진단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촌활력 증진사업 성공 사례 지역 선진지 견학과 전문가 특강, 보완 워크숍을 실시해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 확정할 계획이다.

이러 대학교수,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예비계획 기본 틀을 마련, 이달 중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정은태 건설과장은 "광양읍 사곡리 청년층을 주축으로 마을기업을 설립한다"

며 "부분별 리더 교육을 통해 라벤더 가공품 개발과 판매, 폐 금광을 활용한 라벤더 라이프 휴식공간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마을기업을 뷰티라이프산업과 농업융복합산업이 결합된 기업으로 발전시켜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며 "공동체 활동을 통해 활력 있는 농촌 복합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양=정경화 기자

내고장 사람들



조충훈 순천시장은 7일 오전 11시 로컬푸드 조례호수공원점에서 로컬푸드 2호점

개장식을 갖는다.



신현숙 광양시장 권한대행은 7일 오전 9시 시청 상황실에서 상반신속집행 추진보

고회를 갖는다.



송경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7일 순천시에서 열리는 주민소통 열린강좌에 참석 후 동부지역본부에서 전라남도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주재한다.

고흥 우주발사전망대 세계 최장 징트랙 설치

고흥군 우주발사전망대에 해상 공중하강 체험 레저시설(짚 트랙)이 설치된다.

고흥군은 해발 85m 높이의 우주발사전망대에서 출발해 용바위까지 1.5km의 바다 위를 달리는 징트랙을 21억원을 들여 설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이달 중 착공해 10월말에 준공하고 개장은 11월 초개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안전을 위해 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에 공사를 의뢰했으며 준공 이후에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업체가 위탁·운영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해상 위에 설치된 단일 징트랙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길다"며 "우주발사전망대에서 용바위까지 해안 탐방로가 설치되어 있고 2020년에는 여수와 연결되는 연도교도 개통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진종언 기자

"유모차·장난감 소독해서 쓰세요"

곡성 키즈맘센터 살균소독기 설치

곡성군 보건의료원은 최근 키즈맘 센터에 유모차나 장난감을 소독할 수 있는 유모차 소독기를 설치했다.

6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된 유모차 소독기는 자외선과 식용 소독제로 살균하는 소독기로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전한 제품이다. 살균 시간도 2분 이내로 짧아 간편하게 소독할 수 있다.

곡성군 보건의료원은 지난달에 열린 제8회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에도 축제

장 모유수유실에 유모차 소독기를 설치해 관광객들에게도 쾌적하게 소독된 유모차를 대여하기도 했다.

김영락 원장은 "영유아는 성인보다 각종 감염균 및 세균에 취약하다"며 "세척하기 어려운 유모차를 주기적으로 소독·관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우리 지역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한정길 기자



보성군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오백지 순회 진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보성 오백지 순회진료 서비스

매주 경로당 방문 맞춤형 건강 관리

보성군은 교통이 불편해 병원을 자주 찾지 못하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오백지 순회 진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6일 보성군에 따르면 '오백지 순회진료'는 의료기반이 취약하고 노인인구의 비중이 커져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보성군은 공중보건조사, 간호사 등으로 이동 진료반을 구성했으며 이동진료버스도 오백지 마을 경로당을 매주 방문,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상담과 치과, 한의과, 물리치료 등

통합의료서비스를 비롯해 혈압 및 혈당 검사, 보건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 주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 오백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보성군은 지난해 의료 취약지역 70곳을 방문, 주민 1,400여명에게 진료 혜택을 제공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순회진료 서비스는 군민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의료소의 계층에 양질의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선상희 기자

"꺼지지 않는 불꽃"

순천만정원에 현충정원 준공

시민이 직접 만든 예술작품과 정원이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현충시설이 지난 5일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에 문을 열었다.

순천시는 이날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조충훈 시장과 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정원 준공식을 했다.

순천에 있는 현충시설은 죽도봉 공원에 있었지만, 지대가 높아 접근성이 떨어져 고령의 보훈 회원들의 참여가 힘들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세계적인 조형미술가 강익중 작가와 손을 잡고 국가정원 내 부지 2,244㎡에 높이 3.8m 지름 36.5m의 원형 예술작품과 정원을 결합한 새로운 현충정원을 만들었다.

작품 지름은 36.5m로 365일 동안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호국영령을 뜻한다.



순천시는 지난 5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현충정원 준공식을 가졌다.

시민참여 예술작품 7만점과 강익중 작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아리랑을 모자이크해 색다른 모습으로 꾸며졌다.

죽도봉공원에 있던 위패 1,830개는 현충정원 내 비석 '꺼지지 않는 불꽃'에 함께 모셔 희생정신을 기리게 된다.

/순천=박경식 기자

조충훈 순천시장은 "보훈가족들의 숙원이었던 보훈회관을 지난해 12월에 건립하고 현충정원 준공까지 마무리된 기쁨 베풀듯하게 생각한다"며 "현충정원 준공으로 일상 속에서 산책과 추모하는 호국도시 순천으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 열두골목길 벽화거리 변신

테마조형물·포토존 조성...계획단계부터 주민 참여

여수시 서강동 열두 골목길이 이상한 나라 엘리스와 요정나라를 주제로 한 벽화거리로 변신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초등학교 인근 골목길 300m에 테마 벽화거리가 조성됐다.

벽화가 조성된 서강동 열두 골목길은 좁고 굽은 길로 옛 모습과 정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골목이었다. 여수시는 옛 골목길의 매력을 살리는 한편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2단계로 벽화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먼저 100m 구간에 이상한 나라 엘리스를 주제로 벽화거리를 조성했다. 1단계 구간은 벽화골목에서 황금퍼즐 12개

를 찾는 재미있는 설정으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최근 완성된 2단계 구간도 골목 200m에 실감나는 조형물과 그림, 스토리텔링 벽화, 포토존 등이 조성됐다. SNS 등을 통해 이색 관광지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특히 여수시는 골목길이 좁고 어두운 점을 감안, 벽화조성 시 밝은 색상을 활용하고 범죄예방디자인(CEPTED) 기법도 적용했다.

또 벽화 계획 단계부터 벽화추진위원회, 주민대표들과 추진방향 및 디자인을 논의했다.

서강동 주민들은 지난 3월 주민자치센터에서 벽화골목 활성화에 필요한 주민

의 역할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조성중인 벽화골목의 부족한 점을 분석한 후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벽화골목 정결활동, 서시장 방문객 대상 벽화골목 홍보 등이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여수시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민·관이 함께하는 우수 경관사업 사례를 만들었다.

여수시 관계자는 "마을 주민과 함께 만든 벽화거리가 전통시장인 서시장과 연계 원도심 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도심권의 취약한 경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여수 010-8648-1236
- 광양 010-3622-9898
- 순천 010-2547-7890
- 구례 010-5431-4006
- 곡성 010-6764-6100
- 고흥 010-9151-2828
- 보성 010-4633-1790

클릭! 고향 소식



고흥 치매노인 지문 등록

고흥군보건소가 고품경찰서와 연계해 치매노인 안전망을 구축한다.

고흥군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지문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또 개별 고유번호가 표기된 치매노인 배회인식표와 치매팔찌 무료지원, 치매파트너 양성 등 치매노인 실종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치매검진,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치매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담양 예비부모 건강교실

담양군은 최근 예비부모 40명을 대상으로 4주만에 걸쳐 진행한 '시나브로 가족으로' 아기사랑 부모사랑 건강교실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건강교실에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가족뽀뽀 자존감 살리기', '순풍요가', '모유수유'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돼 예비부모의 큰 호응을 얻었다.

건강교실에 참여한 한 부부는 "교육을 통해 서로 이해하며 육아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교육청 학교운영위 연수

광양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광양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관내 학교운영위원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4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학년도 학교운영위원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광양교육 역량강제 영상 상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 학교운영위원회의 이해 등으로 진행됐다.

임원재 교육장은 "학부모의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여수 마음성장학교 현판식

여수시는 최근 여전중학교와 푸른씨앗 마음성장학교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여수시는 마음성장학교를 통해 교직원 정신건강교육,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정신건강 캠페인, 심층면담, 집단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음성장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